모두 보살되는 수행법…티베트 불교 수행 토대



보리도등론 난처석
아띠샤 지음/중암 선혜 역주
불광 펴냄/4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깨달음으로 가는 길 비추는 등불’ 의미
티베트불교서 중요 위치 차지하는 논서
티베트불교 보리도차제의 사상적 뿌리
아띠샤의 상세한 주석서 국내 초역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 이라는 의미의 〈보리도등론〉은 티베트불교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논서이다. 수행자의 근기를 작은 사람(下士), 중간 사람(中士), 큰 사람(上士)으로 나눠 궁극에는 모두가 보살에 이르는 수행법을 담은 이 책은 훗날 티베트불교의 수행체계인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의 토대가 되었으며, 현재 티베트불교의 교리적 근간이 되었다. 하지만 68구의 게송이라는 짧은 분량 탓에 그 속에 담긴 심오한 이치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보리도등론〉에 대한 다양한 주석서이다. 대표적인 것만 뽑아도 총 15종에 달하는 주석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아띠샤 본인이 남긴 주석서, 〈보리도등론난처석(菩提道燈論難處釋)〉이다. 〈보리도등론〉의 난해한 곳과 근저에 깔린 심오한 의미를 아띠샤 자신이 직접 바르게 드러내고 해설해 보인 이 책을 처음 소개한다.

티베트불교 원전을 번역,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데 매진하는 중암 스님이 〈보리도등론〉과 다양한 주석서를 바탕으로 비교대조해 오류를 바로잡고, 원전의 내용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어와 용어에 대해 상세하게 주석을 달았다. 또한 부록을 통해 익숙하지 않은 티베트불교의 용어와 인물에 대해 풍부하게 설명했다. 30여 년간 인도와 네팔에 머물며 수행과 경론 번역에 매진하고 있는 역자의 공부와 수행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이 책은 티베트불교 수행법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국내 최초 유일 완역본 〈보리도등론난처석〉

티베트불교만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수행법인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 람림)를 꼽을 수 있다. 수행자의 최종 목표인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수행을 차근차근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자신의 현재 위치에 맞는 수행을 통해 점차 높은 단계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열반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티베트불교에서는 보리도차제를 최고의 가르침으로 꼽는다.

현재 보리도차제 체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쫑카빠를 꼽지만 쫑카빠 이전에 아띠샤(982~1054)가 있었다. 인도에서 초청된 승려 아띠샤는 후기 티베트불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 티베트에서는 ‘대은인(大恩人)’이라는 뜻을 가진 존칭, ‘조오제(Jo bo rje)’로 불린다. 티베트 랑다르마(799~842) 왕의 불교 탄압 이후 쇠퇴한 티베트불교 부흥을 위해 티베트로 온 아띠샤는 13년간 티베트에 머물면서 후기 인도불교의 사상은 물론이고, 올바른 수행의 길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68구의 게송으로 된 〈보리도등론〉이었다. 후기 인도불교의 사상은 물론이고, 현교와 밀교 양측의 견해와 가르침을 모두 녹여내어 서로를 무시하거나 배격함 없이, 그 둘을 함께 닦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티베트불교는 ‘현밀쌍수’의 불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리도등론〉에 담긴 심오함에 비해 글이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그 뜻을 충분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보리도등론〉에 대한 대표적인 주석서만 꼽아보아도 15종에 이르는 까닭이다. 하지만 수많은 주석서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주석서이자 최고의 주석서는 바로 아띠샤 본인이 남긴 주석서 〈보리도등론난처석〉이다.

〈티베트어 원전 완역 보리도등론난처석〉은 티베트불교 최고 수행서인 〈보리도등론〉에 대한 주석서 〈보리도등론난처석〉을 완역해 소개한 최초의 책이자 유일한 책이다.

〈보리도등론〉을 처음으로 완역하고, 상세한 해설을 달아 소개한 중암 스님의 번역으로 처음 선보이는 이 책은, 〈보리도등론〉과 여러 주석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판본을 비교하여 오류를 바로잡고, 원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어와 용어에 대해 상세한 각주를 달았다. 뿐만 아니라 책의 절반가량을 할애한 부록을 통해 티베트불교의 용어와 인물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달아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풍부하게 설명했다.

이를 통해 〈보리도등론〉에 숨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낯설 수도 있는 티베트불교의 수행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번역…깨달음 밝히는 주석서

〈보리도등론〉과 〈보리도등론난처석〉의 저자 아띠샤는 인도 비끄라마실라 사원의 장로로 있던 고승으로 후기 인도불교의 사상에 정통했으며, 현교와 밀교 양측의 가르침을 모두 깊이 알고 있는 뛰어난 스님이었다.

티베트의 법왕 장춥외는 온갖 사견(邪見)과 비행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쇠퇴의 길에 들어서 있던 티베트불교를 정화하기 위해 아띠샤를 초청하여 바른 법의 등불을 밝혀 달라고 청하였다. 그 간청에 대한 답이 바로 〈보리도등론〉이었다. 아띠샤는 이 논서에 후기 인도불교의 사상은 물론이고, 현교와 밀교 양측의 견해와 가르침을 모두 녹여내어 서로를 무시하거나 배격함 없이, 그 둘을 함께 닦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68구의 게송이라는 짧은 분량 때문에 그 심오한 의미를 모두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고,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으로 해석하여 오해와 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법왕 장춥외는 아띠샤에게 〈보리도등론〉 내용 중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질문하였고, 그에 대해 아띠샤가 내놓은 것이 다양한 경전과 논서를 바탕으로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밝혀 바로 〈보리도등론난처석〉이었다. 물론 〈보리도등론〉에 대한 주석서가 〈보리도등론난처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티베트불교 수행과 교리 양쪽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논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꼽아보아도 15종에 다다른다.

하지만 저자 자신이 남긴 주석서라는 점에서 〈보리도등론〉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는지, 본래의 의도를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주석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티베트에서 저술된 다른 주석서들과는 달리, 인도 출신인 아띠샤의 주석서에는 인도 정통불교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주석서이기도 하다. 〈보리도등론〉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리도등론난처석〉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끊임없는 수행으로 빚어낸 완벽한 번역서

티베트어로 된 〈보리도등론난처석〉의 정확한 번역과 오탈자 대조, 거기에 상세한 각주를 달기 위해서는 평범한 수준 이상의 자료와 어학 실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문, 산스크리트어, 빠알리어 등 다른 불전 언어와 달리 티베트어에 능통한 이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의 역자 중암 스님은 티베트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30여 년간 인도와 네팔에 머물며 수행에 매진한 분으로, 현재도 네팔의 양라쉬에서 티베트불교 수행과 티베트어 경론 번역에 매진한다. 특히 티베트불교 수행법에도 조예가 깊어 이미 〈보리도등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역해서를 출간한 바 있다. 이런 이력에 비추어볼 때 〈보리도등론난처석〉을 번역할 인물은 중암 스님 외에 없었을 것이다. 역자의 수행에서 비롯된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험, 그리고 성인에 대한 존경심이 녹아 있는 이 책은 〈보리도등론난처석〉에 관한 ‘가장 충실한 번역서’ 라고 손꼽을 수 있다.

▲저자 아띠샤는?

동인도 방갈라 지방에서 법왕 게왜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법명은 ‘디빰까라쓰리즈냐나’로, ‘아띠샤’라는 존명은 티베트 구게 왕국의 법왕 장춥외가 존경의 뜻을 담아 올린 이름이다. 비끄라마실라 사원 장로로 있던 당시, 티베트의 법왕 예시외와 장춥외의 간곡한 초청을 받아 1042년 티베트로 건너갔다. 그리고 13년 동안 티베트에 머물면서 가르침을 펼치고 경전을 번역하는 등 갖가지 교화 사업을 통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던 티베트불교를 다시 세웠으며, 1054년 중앙 티베트 지역에 있는 네탕 사원에서 입적하였다. 티베트에 불교와 학문을 중흥시킨 은혜가 막대하다고 여긴 티베트인들은 그를 ‘큰 은인’이라는 의미의 티베트어 ‘조오제(Jo bo rje)’라는 존칭으로 부른다. 〈보리도등론〉과 그 주석서인 〈보리도등론난처석〉을 비롯한 여러 저서와 경전 번역서를 남겼으며, 제자로는 까담빠의 창시자인 돔뙨빠, 대역경사 린첸쌍뽀와 낙초 · 로짜와 출팀 걜와 등 무수하게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보리심의 나무가 발아하는 데는 물의 촉촉함과 같은 두 가지의 법이 선행(先行)하니, 이같이 마음을 닦는 수심(修心)과 스승님께 예물을 올리는 헌공(獻供)이다.

첫째, 스승님께 예물을 올리는 헌공은 또한 〈현겁경(賢劫經)〉과 〈비화경(悲華經)〉에서 그와 같이 설함과 같다.

둘째, 마음을 닦는 수심은 「보현행원」에서 앞서 설함과 또한 보리행(菩提行)에 들어가는 도리로 행하는 것이다. 그 뒤 상사(上士)의 법의 궤도인 대승도(大乘道)를 한 스승으로부터 일맥(一脈)으로 전승하는 아사리 적천 보살의 의궤 또는 아사리 무착 보살의 의궤에 의해서 사무량(四無量)을 미리 닦는 것으로 위없는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한다.” 〈p.139〉

“원심을 일으키고 그것의 공덕을 아는 그것으로 그것을 증장하기 위해서, “허다한 노력으로 두루 자라나게 하고”라고 말했다. 이것의 뜻을 내가 지은 〈발심의궤(發心儀軌)〉에서 자세하게 설하였으니, “그와 같이 보리심을 발한 보특가라는 보리심을 증장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낮에 세 번 밤에 세 번씩, ‘거룩한 부처님과 달마와 중중존(衆中尊)께, 대보리를 이룰 때까지 저는 귀의하나이다. 제가 보시 등을 행한바 이것들에 의해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붓다가 되게 하소서!’ 라고, 보리심을 발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p.167〉

“양성(兩性)이 바뀜은 과거에 없던 계율을 또한 버리지 않고, 이미 받은 것을 또한 버리지 않는다. 정법이 소멸함도 또한 그와 같다. 사망함으로써 버리는 것 또한 이같이 몸이 같지 않음과 그 몸에 ‘율의의’ 닦음을 행하지 못함과 계율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사리 세친(世親) 보살을 추종하여 설하였다. 그 비나야(毗奈耶)의 전적이 아닌 다른 종론도 많이 있으나 여기서는 적지 않는다.” 〈p.202~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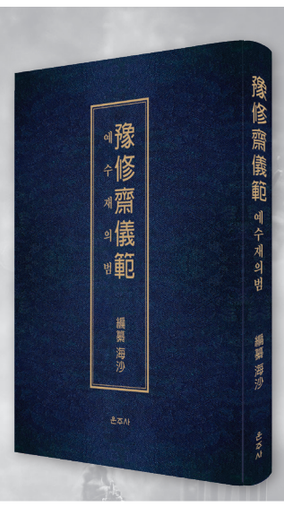
쉽고 재미있게! 불교명상 A에서 Z까지!



불교명상이란 무엇인가? 불교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불교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불교명상의 역사와 원리, 실천 방법과 효과까지 폭넓게 다룬 입문서 겸 실천 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무선/228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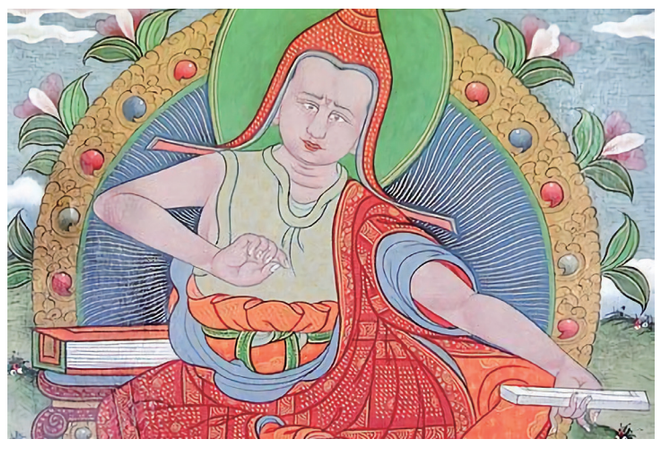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入中論 講解

『중론』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월칭보살의 『입중론』 해설서!

입중론 강해



『입중론』은 티베트 불학원의 학승들이 필수적으로 게송을 암기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도 매일 독송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논서로,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체가 번역, 해설되었다.

월칭 조송/법존 역강/지엄 한역/신국판/양장/40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